

북현유사에 담지 못한 이야기

북현담

伏賢談

북현담

북현유사에 담지 못한 이야기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북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비매품



9 791197 258145
ISBN 979-11-972581-4-5

복현유사에 담지 못한 이야기

복현담

저물어가는 기억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기록에 함께한 복현1동 주민과
청년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구술자, 청년편찬자들이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생생하게 담기 위해
최소한의 교정으로
질문과 답변을 실었습니다.

복현담

伏賢談

복현담은

복현유사에 담지 못한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와
구술을 기록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집입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르신들과
그것을 듣고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들을 담은 복현담을 통해
시대와 세대, 지역과 지위, 가난과 풍요에서 오는
우리 사이의 다양한 ‘담’들이 허물어졌으면 합니다.

目次

목차

머릿말

006 복현담이 만들어지기까지

2019年 복현담 伏賢談

014 물지게로 물 떠오고, 칠성시장까지 애 업고 걷고 다들 고생했지 김부매, 김순제

018 오래도록 반짝거렸으면 합니다 박규훈

020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서성남

026 희망이 가득한 기억, 기억으로 만든 희망 김민국

028 끊임없이 일하고 삶을 이어간다는 것 이옥기

032 궁금한 것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겠습니다 윤석환

034 그때나 지금이나 새댁이지, 지금처럼 건강하면 좋겠어 한영자, 이말순

038 이 순간만은 손녀가 된다는 마음으로 이예지

040 일터, 삶터, 활력이 넘치던 복현동 장미터 하경진

2020年 복현담 伏賢談

- 044 색시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던 복현동..... 오종덕
- 050 손사래치던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기까지..... 김현진
- 052 자세히 보니 예쁘고. 오래 봤더니 정겹다. 복현 1동이 그렇다..... 채인수
- 058 지역을 이해하니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장준원
- 062 오는 사람 부족하지 않게 밥은 항상 넉넉하게..... 배옥자
- 068 꼭 다시 올게요, 복현동에..... 이슬기
- 070 성실과 정직은 절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박인옥
- 076 당연한 것에 감사한 마음, 값진 배움을 얻었던 시간..... 정혁진
- 078 마을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 강순덕
- 084 과거에 미래가 있더라..... 박예찬

부록 복현정담 伏賢情談

- 088 구불구불 미로 속 정감 있는 동네..... 고진호, 윤경옥
- 092 어려운 형편 속에도 인정이 넘치는 부지런하고 깨끗한 동네..... 권혜경
- 098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되는 동네..... 장세만
- 104 상처가 있어도 따뜻하게 아무는 동네..... 이주은

맺음말

- 111 답은 허물어진다

머리말

복현담은

설화형태로 창작된 복현유사에 참여한 주민 구술자와 청년 편찬자들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집입니다.

복현1동은 ‘피란민촌’이라 불려왔습니다.

피란민(避亂民)은 ‘어지러움, 난리를 피한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본 복현1동의 주민분들은 ‘어지러움, 난리를 피했다’기보다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극복하신, 우리 곁의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과 더불어 질서보다는 혼란이 당연했던 시대를 살아오며 내 자식은 굶기지 않으려고
피와 땀을 흘려 삶을 일궈온
주민들은 결코 피란민이 아닌 ‘극란민(克亂民)’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온 그들의 이름은,
교과서에 적혀있는 이름들만큼 혹은 그 이상 기억해야 할 이름들입니다.
복현1동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온 삶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 청년들이 느낀
그들에 대한 마음과 복현1동에 대한 생각들도 자유롭게 펼쳐보았습니다.
시대와 세대, 지역과 지위, 가난과 풍요에서 오는
우리 사이의 다양한 ‘담’들이 허물어졌으면 합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르신들과 그것을 듣고 느낀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들을 담은 복현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혜와
따뜻한 메시지를 받아 즐겁고 평안한 삶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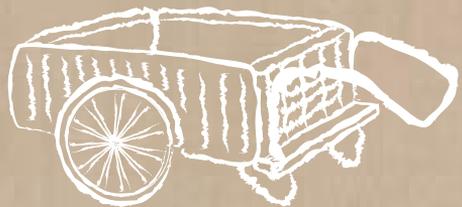
2020. 12.

복현유사 프로젝트 매니저 심재신

복현담이 만들어지기까지

伏賢談

복현1동 주민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그들이 전기수(조선후기 한글소설을 읽어주던 낭독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복현유사 프로젝트 진행과정의
인터뷰 내용을 복현담으로 담아내었습니다



2019년 복현유사 프로젝트

경북대 서문 마을기업 <내마음은 콩밭 협동조합>이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으로 제안하여 복현1동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복현유사 공동진행

7月

복현유사 홍보

- 복현유사 프로젝트 설명 및 홍보
- 주민구술자 및 청년편찬자 모집

8月

오리엔테이션

-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내
- 삼국유사를 벤치마킹한 복현유사의 목적 및 진행방법 안내
- 주민구술자와 청년편찬자의 만남

구술자·편찬자
워크숍(1,2차)

- 복현유사 스토리 주제 및 방향 설정
- 주민구술자·청년편찬자 매칭 및 심층인터뷰 진행
- 과거와 현재, 마을 및 생애사 등 다양한 스토리 수집

9月

청년편찬자
워크숍

- 인터뷰를 바탕으로 스토리 각색을 위한 회의
- 이야기 특색 도출 및 스토리 선정
- 문학창작 교육 및 이야기 각색, 편찬 진행

중간공유회

- 복현유사 중간공유회 진행(삽화 워크숍)
- 청년편찬자가 편찬한 이야기 발표 및 피드백
- 문제점 및 스토리 라인 보완·수정, 삽화 그리기

10月

생활문화
프로그램

- 복현1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듭공예, 희망 연못, 장미 에코백, 푸드 아트 테라피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 진행

시 수업 (1)(2)

- 청년편찬자가 창작한 복현유사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시 수업
- 주민들의 시를 각자의 방식으로 낭송 연습

11月

성과공유회

- 복현유사 성과공유회 진행
- 주민들의 시낭송, 낭독극, 복현유사 이야기책 배포 등
- 세대공감 복식당(음식과 함께 주민들과의 대담)



복현유사 2019



구술자·편찬자 워크숍



시 수업



중간공유회



생활문화 프로그램



생활문화 프로그램



세대공감 복식당



성과공유회(낭독극)



성과공유회(시낭송)



2020년 복현유사 프로젝트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복현유사 프로젝트 총괄 운영 및 진행

4月

복현유사 홍보

· 2020 복현유사 홍보 및 주민구술자, 청년편찬자 모집

5月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진행(청년편찬자)
· 사업 목적 및 모티브 〈전기수〉에 대한 설명
· 2019 복현유사 진행과정 및 결과, 활동내용 및 과제 안내

복현유사
설명회

·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복현유사 프로젝트 소개
· 주민구술자에 대한 내용 교류 및 청년편찬자 매칭
· 주민협의체, 청년편찬자 복현1동 마을답사

6月

1:1인터뷰

· 주민구술자와 청년편찬자의 역할 안내 및 지도
· 주민구술자 1:1인터뷰 및 영상촬영 진행
· 인터뷰 진행 후 편찬방향 및 주제설정 논의

청년편찬자
워크숍

· 이야기 편찬 기획 워크숍
· 인터뷰를 통한 이야기 특색 도출 및 스토리 선정
· 편찬방향 공유 및 각색 피드백, 삽화 그리기

10月

도시재생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및 우수상 수상

12月

성과공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성과공유회 진행
· 복현유사 낭독극, 인형극 등 영상 촬영 후 유튜브, SNS 공유
· 감사패, 복현유사 굿즈, 이야기책 등 가가호호 방문 전달 및 우편 발송



복현유사 2020



청년편찬자 워크숍



1:1 인터뷰



복현1동 마을답사



가가호호 방문전달



가가호호 방문전달



성과공유회(인형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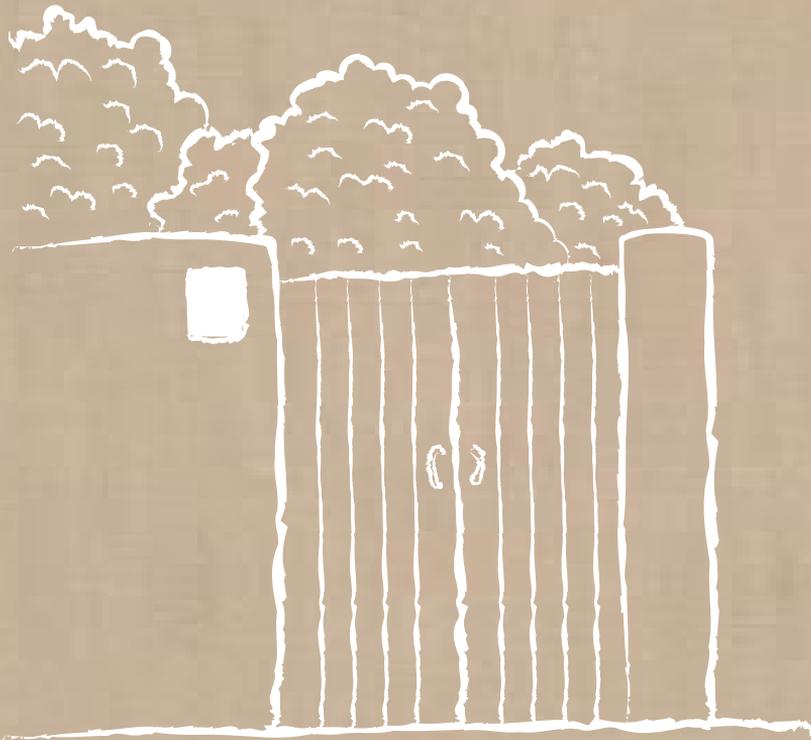
성과공유회(낭독극)



성과공유회



복현담 은 왜 만들어졌나요?
伏賢談



‘내는 이런 얘기 한 적 없다카이’

복현유사는

청년편찬자가 주민구술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창작한
설화·동화 형태의 이야기로, 주민들이 언급한 이야기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연못에서 도깨비가 나오고,
불가사의하게 시간여행도 하는 상상의 이야기로
흥미롭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내 이야기가 맞나'하고
긴가민가해 하셨습니다.

복현담은

창작된 이야기인 복현유사에 그대로 실리지 못한
주민들의 삶의 지혜와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구술자와 청년편찬자들의 대화 내용을
최소한의 교정으로 기록하고 풀어쓰고자 했습니다.

물지게로 물 떠오고, 칠성시장까지 애 업고 걷고 다들 고생했지

주민구술자 김부매, 김순제 편찬자 박규훈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번에 ‘복현유사’라는 기록 일에 참여하게 된 박규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질문 드릴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옛날 이야기해주시듯 말씀해주세요. 복현동에 언제 처음 오셨나요? 그 당시 복현동의 모습은 어땠나요?

김부매 : 저는 고향이 경북 예천입니다. 결혼 후 포항에서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963년에 복현동으로 왔습니다. 과거 복현동은 밭과 논, 묘가 많았습니다. 지금 신현교회 주변은 대부분 묘와 밭이었고, 복현 예배당 주변에도 묘가 많았습니다. 밭에서는 콩을 많이 경작했고 포도와 복숭아를 경작하는 밭도 있었습니다.

김순제 : 복현동에 오게 된지는... 음...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대략 한 50년 정도 여기서 살았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당시에는 상주군) 외서면 연봉리가 고향입니다. 결혼 이후 강원도 태백,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등 이사를 많이 하다가 복현동에 정착했습니다. 묘와 밭이 많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추가로 경북대학교 동문 부근에는 키다리란 못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웃집 화장실에서 해골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묘가 많아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복현동에 오시고 나서 생활은 어떠셨는지?

김부매 : 복현 1동 주민 분들은 다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봉투 붙이는 일도 했었는데 급여가 많지 않음에도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사 일을 하기도 하고 칠성시장에 장사를 하러 가는 주민분도 있었습니다. 버스도 없고 교통이 매우 좋지 않아서 아이를 업고 칠성 시장까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당시 경북대학교 ~ 칠성시장까지의 길은 대부분 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택시가 동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순제 : 그 당시 복현동 사람들은 다들 무척 가난하였고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전의 복현동은 수도시설, 교통시설 등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요즘처럼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직접 물지게를 이고 떠와야지만 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경대로터리 (경북대학교 일청담으로 추정됨)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요즘에야 잘 먹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는 비싸기도 하고 귀해서 시래기 등을 이용한 죽을 많이 끓여먹었고 나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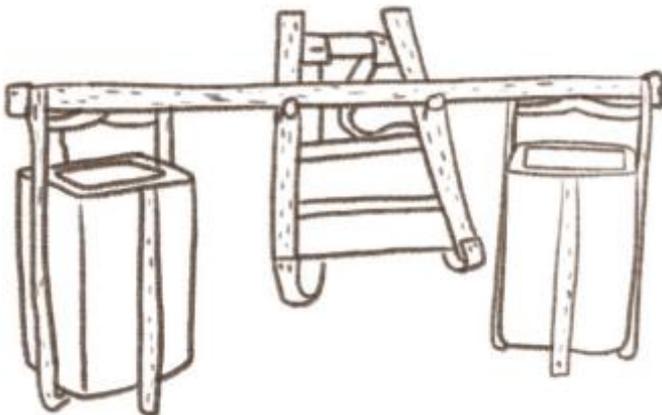


김경식, 김순제 내외분

들어보니 지금과는 엄청 다르네요, 지금의 복현동으로 변화한 것 중
꼭아서 이야기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김부매 : 변한 것 투성이죠. 경북대학교 앞에 현재에는 다 메꾸어졌지만 예전
에는 커다란 못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가 생기기 전 후로 동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룸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도 쓰레기문제
등으로 인한 대학생들과의 트러블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 촌과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달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함이나 불만은 없습니다.

김순제 : 동네가 개발이 시작되고 학교가 들어서면서 복현동 인근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묘와 밭들이 없어지고 그 위에 많은 원룸들이 들어섰고
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근의 건물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동네가
많이 변화하면서 사라진 것 중에서 딱히 사라져서 아쉽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길이 잘 닦이고 교통이 좋아진 것은 좋았습니다.





구술자·편찬자 워크숍 (강순덕, 김순제)



오래도록 반짝거렸으면 합니다



2019 복현유사 '가람전'
청년편찬자 박규훈

학교에서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인류학은 주로 현장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여러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인류학의 연구 방식이 복현유사 모집 공고 속 활동 내용과 상당히 유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이러한 연구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복현유사 프로젝트 이전에 대외활동 참여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이 기회에 한 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복현유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은데 운 좋게 선정이 되고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참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눌 상황도 많이 없었고, 경험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르신들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 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등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어르신들께서는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일 뿐인 나를 마치 손자인 듯 편하게 대해주셨고, 말씀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과 긴장을 풀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며 느낀 점은 그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오셨음에도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분들과 정말 사이좋고 정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다들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 당시 가족들, 이웃들과 좋은 추억이 있었다며 오롯이 그 시절이 나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결국 언젠가 힘든 시기는 끝이 날 것이며, 그 끝에는 나와 힘든 시절을 공유한 사람들이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으나, 굳이 꼽자면 대구·경북에서 계속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한 사투리들이 있어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사투리를 조금 더 공부하고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복현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북대학교 테크노문~동문 사이는 오로지 준비한 원룸들 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대 담벼락을 지날 때면 피란민촌이 더 눈에 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르신 분들이 떠오릅니다. **낯설었던 곳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집니다.** 앞서 말했듯 복현 1동 어르신 분들은 정이 넘치십니다. 또한, 어르신분들은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소통하며 지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청년들도 복현1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제가 느낀 ‘정겨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현유사를 홍보하는 문장 중에 ‘저물어 가는 것을 반짝거리게 하는 기록’이라는 말은 복현유사를 정말 잘 표현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결국 잊히기 마련입니다. 마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신천 홍수로 인한 다양한 사연을 가진 피란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현 1동의 역사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5명의 동료 청년편찬자들과 함께 복현 1동의 마을사는 ‘복현유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창작된 짧은 기록들이지만, 이 기록 들은 복현 1동의 모습을 때론 아기자기하게, 때론 신명나게, 때론 슬프게, 정말로 다채롭게 담아내었다고 봅니다.

저만 보기 아까운 이 기록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복현1동의 마을사가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반짝거리면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내 삶의 행복

주민구술자 서성남 편찬자 김민국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번 복현유사라는 기록사업에 참여하게 된 김민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여쭙겠습니다. 편하게 말씀주세요. 복현1동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서성남 : 1977년 8월부터 정착, 부산에서 기계공장을 운영하던 중 실패했고 이후 현대건설에도 납품할 만큼의 규모의 슈퍼마켓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벗어나려고 하던 중, 당시 복현 1동에 사촌 형이 거주 중이셔서 따라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촌형님을 따라서 내려오실 당시의 복현동의 모습은 어땠나요?

서성남 : 지금의 경북대학교를 시작으로 안쪽으로 진입하는 길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차 번호판이 땅에 툅툅 걸릴 정도였으며,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매일 물을 지게에 길어왔습니다. 그저 황무지에 몇 집이 늘어서있는 정도일 뿐. 지금처럼 현대적으로 발전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업의 실패나 하던 일들이 잘 안되셔서
대구에 내려오셨을 때, 초기의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서성남 : 아들이 셋, 딸이 하나였습니다. 오자마자 한 일은 리어카 하나를 사서 칠성시장에서 다마네기(양파)를 모조리 사서 다시 평화시장에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또 쉬지 않고 바로 일용직부터 나갔는데, 현재 대구 시내의 중앙지하차도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목수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집을 짓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밑천으로 성주에 배차밭(배추밭)을 사고 농사를 지었으나 배추 값이 폭락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만 두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서성남 : 4년 전까지 팔공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테이블을 세팅하고, 짐도 나르고, 호텔에서 여러 일들을 3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신청해서 다시 복현동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게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복현에서 지내시면서 불편한 점 혹은 바뀌기를 바라는 점?

서성남 : 그 점에 대해서는 내 할말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옆 대학교가 있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마을에서 지내는 점도 좋고,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곳이 곧 내 일터라는 점도 좋습니다. 그 질문을 더 확장시켜 대답하자면 아직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일입니다. 젊은이들이나 청년들도 내가 먼저 내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참 잘 대해줍니다.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서성남 : 전국에 있는 좋은 곳, 제주도 같은 좋은 곳에 놀러도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일에 불과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당시 복현동에서 ‘중앙통’ 이라는 곳에서의 추억 혹은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서성남 : 그 때 당시에는 진주상회에서 다들 모여 술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다들 서로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라서 자주 불러서 정겹게 한 잔 주고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진주상회에서 조금 내려오면 만물상회, 그 바로 옆에 방앗간 이던 김천상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의 끝부분에 멀리 촌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또 하나의 상회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진주상회가 없어지기 전까 지는 마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 역할을 했습니다.

연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기억하시는 ‘배자못’에 대해 말씀해주실래요?

서성남 : 못이 검단동 일대까지 이를 정도로 까마득하게 크고 깊었습니다. 간혹 익수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못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었고 큰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못을 메우는 작업을 할 때, 커다란 덤프트럭으로 이틀 내내 흙을 가져다 넣으니까 조금씩 못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못이 하도 깊어서 당시 포크레인 기사가 흙을 넣는 작업을 하다가, 운전이 미숙해서 물에 빠지는 위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의

북현1동에서 어르신이 기억하시는 당시의 ‘공용화장실’은 어땠나요?

서성남 : 중앙통 끝부분에, 김천상회 뒤로 있었던 길로 기억합니다. 다들 볼 일이 급하면 하나 뿐인 그 화장실로 쫓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당시에는 휴지가 없던 경우가 훨씬 많아서 실로 못 쓰는 종이들을 묶어서 걸어놓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급하면 아이들 공책을 가져와서 뽀뽀한 종이를 구겨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온 77년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외의 어르신이 기억하시는 동네 어귀의 모습들은 어땠나요?

서성남 : 경북대 정문을 시작으로 들어오는 길이 참으로 험했습니다. 길을 언제나 질어서 차가 푹푹 빠지기 일쑤였고, 길 가운데는 또 높아서 차가 자꾸 땅에 걸렸습니다. 비 오는 날 택시를 타면 기사가 마을 인근에 얼른 내려주고는 여기를 들어갔다가는 세차비도 안 나온다면서 택시비도 받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의 양 옆으로 탱자나무가 쪽 있어서 차가 좀 크다 싶으면 그 나무의 가시에 긁히고 그랬습니다. 요즘 도로 환경은 예전에 비하면 아주 예의바른 ‘신사’인 셈입니다.

어르신이 말씀해주신 기억들,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책을 만드는데, 혹시 책 속 이야기나 흐름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서성남 : 먼저 행복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의 어머니는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떠났습니다. 큰 집의 큰 아버지, 큰 어머니에게서 컸고, 부산과 대구, 서울을 오가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하던 공장과 여러 사업들이 실패하고 복현으로 내려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생들의 끝에 이제 복현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인정받고, 자식들도 착하게 잘 키워서 마음이 놓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역경이 많은 삶을 살았어도 끝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나는 결혼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복현동으로 올 당시에 우리 할머니(아내)하고 같이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 좋은 일 다 함께 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도 이 복현동에서 떠났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살만하니까 떠났습니다. 올해 첫 제사를 지냈는데 마음이 안타깝고, 아직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야기의 작은 한 줄기로 담아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인 복현에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서성남 : 지금 복현마을 몇몇 집들은 오래된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철거나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싸우거나, 언성 높이는 일 없이 지금 같이 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오순도순 다시 잘 살고 싶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동네가 되는 것이 지금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희망이 가득한 기억, 기억으로 만든 희망



2019 복현유사
'사내와 복현도깨비'
청년편찬자 김민국

편찬자로 참여할 당시, 적힌 바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청한 기억보다는 마음이 '복현유사'라는 한 단어에 끌려서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편찬자의 말을 쓸 때 빼놓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집은 허물어질 수도 있고, 마을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녹도 슬지 않고서 자리를 지킨다는,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이 한 마을에 존재한다고 적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록(記錄)이라 함은 '해체'보다는 '보존'을 전제합니다. 마구 흩어진 파편들을 주워다가 이어붙이는 작업. 세상을 살아가다가 한번쯤은 '위대한' 이라는 말이 붙은 기록의 형태들은 사실상 기록보다는 '역사'라고 명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복현유사'와 '복현담'은 그러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은 것이라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규정을 짓습니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 구별하기 쉬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노년층에 대한 생각들도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입혀집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집단을 '일반화'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광경들은 그 누구보다도 독립적입니다. 일반화 과정 속에 어르신들의 살아오고, 겪어온 시간마저도 제대로 바라봐주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각자의 뿔어나가는 인생의 실들이 다른데, 자꾸만 억지로 실들을 일자로 펴내는 사회가 무심하기도 합니다. 그 무심함 속에서 저는 서성남 어르신을 통해 아주 따뜻하고 값진 배움을 얻었습니다. **'성실'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평생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서성남 어르신을 만나 뵈고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복현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을의 조건은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과 같이 구성되어야만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마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말이 가져다주는 느낌은 물론 구사환경까지도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은 자연스레 이야기를 생성합니다. 살고 있는 땅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기억들이 쌓여갑니다. 복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건물들 뒤로 숨겨진 마을은 반세기 전 모습을 고요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복현유사를 통해 어떤 점이 바뀌고, 나아질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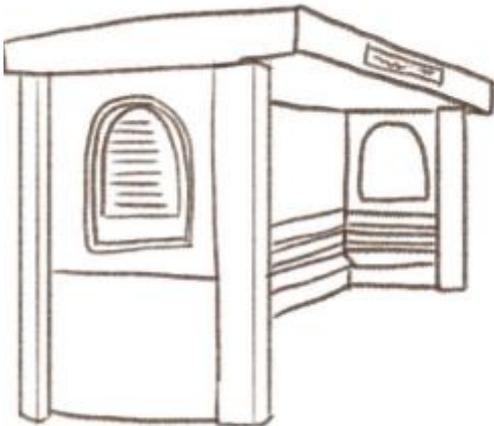
스웨덴에는 청년은 희망에 살고, 노인은 기억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현유사는 슬기롭게도 희망과 기억이라는 두 세대의 원동력 사이의 접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은 ‘희망이 가득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고, 노인들은 ‘기억으로 만들어 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순환의 모델이 되어버린 복현유사와 복현담이 언젠가는 두꺼운 합본으로 묶여서 ‘쿵’하고 찍혀 나오는 가슴 벅찬 그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일하며 삶을 이어가는 것

주민구술자 이옥기 편찬자 윤석환

안녕하세요, 이옥기 어르신. 이번에 복현유사라는 기록사업에서 인터뷰 하고 글을 쓰게 된 윤석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현동에는 언제 처음 오셨는지? 오시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이옥기 : 반갑습니다. 복현동에는 1968년에 처음 왔습니다. 그 전에는 고향인 영천에서 농사를 하며 살았는데 남동생이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독립하게 됐습니다. 그 때는 하루 세끼 먹는 것은 고사하고 온 가족이 죽으로 연명했던 시절이라, 그나마 도시에서 돈을 버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복현동에 누님이 살고 계셔서 복현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복현동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옥기 : 지금은 원룸촌이 가득하지만 원래 그 곳은 모두 산이고 묘지였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이랑 골당집이었습니다. 복현동 사람들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로는 포장조차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택시기사들이 복현동으로 올라오기를 꺼려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집도 드물었는데 아침이면 출근 전에 불일을 보러 나가는 사람들로 공용 화장실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특히 물이 귀해서 남자들은 출근 전에 물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고, 여자들은 채소를 씻고 빨래를 하기위해서 동촌까지 걸어다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어머니들이 무리지어서 동촌으로 빨래를 하러 다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셨는데,

처음 복현동에 오신 직후에는 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옥기 :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었기 때문에 채소장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밭이 있는 동촌부터 칠성시장까지 매일 다녔습니다. 젊은 나에게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했던게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눈대중으로만 보고도 채소 양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채소장사 하기에는 아까운 머리라고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채소장사를 3년 한 후에 신암동에 있는 목재소로 옮겨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복현동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의 신현교회 앞 길을 중앙통이라고 했었는데 그 곳에 슈퍼마켓이 3개나 생겼었습니다. 생필품 장사로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인, 노동자, 채소장수,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던거 같습니다.

그때의 복현동과 지금의 복현동, 많은 것들이 변했을텐데 주로 어떤 점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옥기 : 복현동은 예전에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힌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결령한 사람들도 많았고 돈을 뺏기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대학(경북대학교)이 들어오면서 묘와 산, 밭 등이 원룸촌으로 바뀌어 갔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집이나 흙집 등이 슬레이트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도 포장되고 교통도 좋아졌습니다. 원래 버스를 타려면 지금의 경북대 정보전산원 앞에 있는 로터리까지 갔어야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축협사거리부터 복현오거리까지는 논과 배자못이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가물치나 농어같은 민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었습니다. 그 후에 부근이 개발되면서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위에 지은 건물들이 넘어지지는 않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많이 고된 일을 하셨는데, 복현동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

이옥기 : 목재소를 다니면서 수입이 안정되고 생활이 좀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칸방에 정착했었는데 그 후에 방이 5개나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루에 10-12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계속 했었고 10년 넘게 신암동의 목재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후에는 성서쪽의 목재소로 옮겨서 역시 10여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갈수록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사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복현동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95년도쯤 신암동에 있는 2층 양옥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집도 다 봐두고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무렵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보더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큰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위암이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병원비와 수술비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복현동에 남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옥기 : 위암치료를 하고 나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막내 자식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몇 년 회복하다가 아파트 경비일을 시작했습니다. 칠성동에서 10년 정도, 산격동에서 5년 정도 아파트 경비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소일거리도 하고 친구와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막걸리를 한잔 하기도 하면서 지냅니다.

북현동에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옥기 : 오래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지만 북현동 산 부근 별판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북대 로터리 버스정류장에는 소매치기가 아주 극성이었던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다니던 버스가 2번 버스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배차간격이 엄청 길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됐던거 같습니다. 한번 놓치면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요. 또 다들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용화장실을 썼는데 화장지가 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해놓은 숙제공책까지 닭을 거리로 사용했던게 기억납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겠습니다



2019 복현유사
'배자못과 행복현동'
청년편찬자 윤석환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학인 경북대학교입니다. 복현유사에 참여할 때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현동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놀러가던 동기의 자취방이 있는데 그 곳으로 가는 길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예전의 '중앙통'입니다. 그 길을 지나면 이 곳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신지 궁금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 근처의 원룸촌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피란민촌에 관련한 이야기를 적는다는 복현유사를 알게 됐고 개인적인 호기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같은 동네에 사는 대학생으로서 의미있는 일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인터뷰 했었는데 이옥기 어르신과 최문헌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옥기 어르신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쏟아내셔서 활발하신 분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 최문헌 어르신은 좀 과묵하신 편이셨습니다. 이옥기 어르신은 얘기를 굉장히 잘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친할아버지에게 옛날 얘기를 들듯이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저는 복현동을 잘 알고 있으니까 되는 공감 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아! 여기가 예전엔 논이었던 말이에요?”, “아! 거기가 예전엔 산이었어요?” 라는 감탄을 연발하며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을 사용하기 위해 물지게를 아침마다 옮긴다거나,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용화장실 앞에 줄을 선다거나, 동촌까지 걸어다닌다거나 하는 말씀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참 고되고 힘든 삶들을 살아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 지역에 사는 대학생들과 어르신들이 같이하면 재밌는 작업들이 많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동네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얘기만 해도 재밌는데 동네를 위해, 마을 공동체를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활동들이 많아지면 복현동이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복현동에 대한 애정이나 좋았던 기억은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들 예전 복현동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고생하셨고 힘드셨던 기억만 나는 거 같아서 안타깝기도 했고, 얘기에 담을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기억, 행복했던 기억 위주로 얘기를 담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현동은 과거와 현재, 노인과 청년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을 쳐다보면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원룸촌과 젊음, 청춘이 느껴지고 다른 쪽을 쳐다보면 낡은 슬레이트 판잣집과 어르신들, 과거의 기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동네 같습니다. 그래서 복현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도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은 너무 예전에 고생했고 벗어나고 싶었던 빈촌으로서의 복현동의 기억 때문에, 대학생들은 잠깐 살다가 곧 떠날 동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에 대한 애정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딘지 험하고 비어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실제로 동네를 거닐어 보면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저 각자의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수많은 섬들이 오밀조밀 모여만 있는 느낌일까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네 분의 편찬자들이 쓰신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복현동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지만 편찬자들마다 주목했던 지점도,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달라서 더 재밌었습니다. 복현유사라는 활동 자체에 대해 얘기하자면 더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19년 복현유사 성과공유회 때 제 이야기인 ‘배자뭇과 행복현동’이 낭독극으로 재탄생했었는데 이와 같은 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OSMU(One Source Multi-Use)**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단편 소설 뿐만 아니라 낭독극, 연극, 그림책 등등 제2, 제3의 복현유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새댁이지, 지금처럼 건강하면 좋겠어

주민구술자 한영자, 이말순 편찬자 이예지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과 함께 복현유사를 쓰게 된 이예지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복현동에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영자 : 음, 별로 기억에 남는 중요한 이야기도 없는데.

그래도요, 할머니 예전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럼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할머니께선 복현동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신거예요?

한영자 :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사십일곱인데, 아주 어릴 때 이사왔으니 50년이 다 되어가지. 그 때는 여기 도로가 없었어. 그냥 논, 밭이었지. 택시를 타면 경대정문에서 내려주고 이 언덕은 안 올라오려했어. 논 주변이라 땅이 질어서 질퍽질퍽하니까. 그 당시에 전기도 없고... 식수도 안 나와서... 샘 있는 집에 가서 물을 얻어왔었지. 나중에, 공동 수도가 설치되었는데 그것도 양이 넉넉지 않아서 새벽 4시에 나가서 줄 서서 길어왔지. 빨래 하러는 동춘까지 걸어가서 하고.

동촌까지면 엄청 먼데, 그 길을 걸어다니셨다구요? 힘들셨겠어요.

한영자 : 그때는 다 걸어서 다녔지. 칠성시장까지도 논길 가로질러서 걸어서 다니고. 지금이야 많이 발전해서 차도도 생기고 차도 다니는데 그때는 여기 언덕을 다 걸어다니고 가게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인제는 하나도 없지. 원룸 다 들어서고. 사는 사람들도 다 대학생이라 쪼매 살고 나가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이 이제는 우리밖에 없지. 지금은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그리운 장면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영자 : 왜 안 그렇겠어. 아쉽지. 요 앞에 진주상회라고 점빵집이 있었는데 가게 앞에 평상 하나 두고 동네 어르신들 다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했거든.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서 연탄을 샀어. 많이 사지도 않아, 그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하루에 한 두 개씩 사가고 그랬지.

혹시 앞으로 꼭 하고 싶으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한영자 : 건강한 거, 자식들 잘 되는거. 그거 말곤 없어.



어르신께서는 복현1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당시에 풍경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는거 이야기 들려주실래요?

(경로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였는데 한영자 어르신의 추천으로 이어서 이말순 어르신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말순 : 무슨 이야기를 해야되나. 여기로 이사와 산지가 정확히 52년이네. 처음 여기 와 남의 집에 세 들어 살았는데 그 한 집에 열다섯집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 한 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취장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선 설거지하는 물에 풍당 빠진 적도 있었어. 그러곤 몇 년 있다가 이사가 가서 다른 집에서 살았는데, 물이 귀하던 때라 샘에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서 그 물로 씻고... 먹고... 그러다가 개인수도로 바뀌었지. 그 전에는 공동수도였어. 땅은 또 얼마나 질어서 장화 없으면 못 걸어다녔지. 배자못이라고 커다란 못도 하나 있었고.

배자못이요? 지금은 없어졌나봐요.

이말순 : 지금은 못을 메웠어.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못을 막아버렸지. 옛날엔 저 뒤에 야산도 있었는데 그것도 허물어버렸지.



그렇군요, 동네의 모습이 많이 변했겠어요...
어르신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말순 : 응, 칠십칠. 여 경로당 오는 사람들 중에 내가 세 번째로 막내여. 켈로 새댁이 칠십삼인가, 칠십사인가.

할머니, 칠십삼세가 새댁이에요?

이말순 : 그럼, 새댁이지! 내가 그 때로 돌아가면 예쁜 옷도 입고.. 예쁜 신도 신고... 어디든지 놀러나가야지. 이쁘고 젊을 때 놀러 많이 나가야지. 근데 지금도 딱히 여한은 없어. 지금처럼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



이말순 구술자



한영자 구술자

이 순간만은 손녀가 된다는 마음으로



2019 복현유사
'복현암이 남긴 선물'
청년편찬자 이예지

일생의 대부분을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복현동의 공간과 기억이 잊히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복현동의 모습을 머릿속으로나마 재현해보려고 합니다. 복현유사는 제가 대학교 졸업을 막 앞둔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접한 대외활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진로고민으로 제가 가장 많이 방황했던 시기고 학교 수업과 자격증 준비로 바쁘던 때라 복현유사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현유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며 긴장을 풀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도 굉장히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어르신은 한영자 어르신이셨는데 **‘이 할머니의 손녀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라기보다는 담소를 나누듯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어색하셨는지, 어르신은 ‘무얼 이야기 해주면 되냐,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거 들어서 뭐할라구’라며 손사레치며 난감해하셨습니다.

복현유사 프로젝트의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 좋았을텐데. 몇 주 사이에 처음보는 청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르신과 교감을 하기에는 시간관계상 급하게 지나간 감이 없지 않다 느꼈고요.

그럼에도 짧다면 짧은 그 이야기 안에 힘겹게 살아내시며 쌓인 기억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당신에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어쩌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희에겐 특별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큰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고마워 하시어 ‘같이의 가치’라는 말을 곱씹어보게 했습니다.

덕분에 제 이름이 적힌 책도 하나 내보고 정부사업에 동참도 해보고 이번 일을 통해 영리보다는 상호부조를 위해 힘쓰는 청년들이 가까이에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전이라는게... 구(舊)도시를 신도시로 재개발하는 것만이 도시재생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현유사와 같이 재밌게 지어낸 이야기도 좋지만 ‘복현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어 복현1동 어르신들의 시간을 많은 이가 경험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 살아온 이야기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읽을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복현동이라는 곳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일터, 삶터, 활력이 넘치던 복현동 장미터

주민구술자 하경진 편찬자 김현진

안녕하세요, 하경진 선생님! 이번 복현유사 프로젝트에서 인터뷰하고 글, 삽화 지도를 맡게 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복현1동 그리고 선생님의 삶에 대해 이것저것 여쭙겠습니다. 복현1동에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하경진 : 96년도 쯤 이 동네에 넘어 왔으니 20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복현1동에 온 이후 자율방범대장 등의 일을 하며 4, 50년 산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칠성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복현오거리 쪽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배자못이란 곳에 어릴 때 소풍을 많이 왔었습니다. 배자못 주변에 소나무가 많았고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도로가 있었
습니다.



어렸을 때나 처음 복현동으로 이사 오셨을 때 정도에 기억하고 계신 복현동 일대의 모습을 말씀해주신다면?

하경진 : 총각 때까지만 해도 일대에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현시장이 생긴 후 90년 초까지는 흥했습니다. 차가 현재처럼 많지 않고 모두들 걸어 다녔으니까요. 98-99년도쯤 되면서 시장이 서서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96년, 제가 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장미공원에 넝쿨장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장미가 많이 피어서 복현동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장미들은 공무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복현은 행정 구역이 1, 2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고 한 동이었습니다. 60년대 중반 쯤이었는데 영진전문대에서 오는 오르막길, 경진초 앞쪽이 전부 나지막한 야산이었고 넓고 붉은 바위가 많았습니다. 층이 지고 퍼석한 무늬가 있는 너들바위들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기와집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생기더군요. 2000년 초에 빌라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가 형성됐습니다. 복현동 막창골목은 원래 가게가 띄엄띄엄 한 두 개 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 골목이 형성됐습니다. 에메랄드 호텔이라고 70년 중반에 세워진 큰 호텔이 있었는데 2007~8년 사이 시티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주민 구술자분들에 비해 비교적 젊으셔서,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많다고 했는데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하경진 :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은 돌아가시거나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초대 구의원이셨던 김재문님과 함께 들은 이야기인데, 1800년대 후반쯤 이 일대(현재의 복현2동 쪽)에 여씨 집성촌이 있었고 그 때 동네 야산 언덕에 ‘보현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복현암으로 불리다가 이 일대가 복현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도 여씨 집안 친척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복현’은 한자로 엎드릴 복(伏), 어질 현(賢)을 씁니다.) 배자뭇은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간(약 60평) 4~5개 합쳐놓은 것 만한 넓이에 엄청 깊었는데 뜬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만큼 사고나 사연이 많았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배자뭇을 메워버렸는데 당시 개발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뭇에 대해 흥흥한 이야기더 있으니까 한동안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서야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복현동에 오시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해주신다면?

하경진 : 사람들의 사적인 이야기나 당장 떠오르는 이야기는 없지만 동네에서 오래 살고 활동했던 분은 김재문 님(가구, 사무용품 사업을 동네에서 오래 함), 구의원을 지냈던 구성본 님, 여오동 님(여씨 집안) 등이 있고 이응일, 강순덕, 나영달 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예전에 국가에서 지어주던 주공아파트 자리에 원래 돌무덤, 고분이 있었다는 것인데, 보존하거나 국보급 가치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집 짓는다고 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자리는 원래 공원으로 불렸던 건 아니었어요. 60년대 당시 언덕배기(어린이 놀이기구와 계단이 있었음)에 넝쿨장미가 상당히 많이 피어 있었고 빈터에 사람들이 의자, 탁자를 놓고 쉬었습니다.

그 때는 장미밭, 장미터라고 불렀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정리를 해서 공원으로 다듬었습니다. 복현오거리에서 검단으로 가는 방향에 있었던 배자뭇은 어릴 때 물귀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어르신이 이야기했던) 풍지게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우마차가 지나다녔다던 그 길 (배자뭇 앞 길)로 분노를 실어서 검단동까지 가서 버리고 왔습니다. 밭이 많으니까 분노를 버린 건데요. 배자뭇 가는 길 주변으로 미나리밭이 많았습니다. 구동네(구닥다리 동네)라서 동네 안 봉사단체나 모임 이곳저곳을 중복으로 들다 보니 파벌, 기싸움도 있었습니다. 여오동 님이 동네를 위해 일을 많이 했는데 90년대 후반 동민축제를 할 때 단체마다 입는 조끼 때문에(소속원이 중복되니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른스럽게 복현1동 내 관계자들을 모두 모아서 단체활동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강순덕 님은 90년대 후반부터 부녀회장 일을 해오고 있는데 어르신 봉사 등 동네를 위한 일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복현시장 상인회(상가번영회)는 회비 문제 때문에 중간에 회비 문제 때문에 한번 해체돼서 공백이 있다가 2000년 후반에 재결성됐습니다. 경진초등학교는 신암1동-4동 쪽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현재는 전교생이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동네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주민 수도 22년 사이에 7천명 정도로 줄었다_90년대 1만 4천명)



색시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던 복현동

주민구술자 오종덕 편찬자 김현진 (심재신, 박아영)

안녕하세요, 오종덕 어르신.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복현유사라는 기록 사업에 참여해서 인터뷰와 글을 쓰게 된 김현진이라고 해요. 이것저것 여쭙겠는데 맘 편하게 지내셨던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복현동, 이 집)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오종덕 : 네, 반갑습니다. 시원한 보리차라도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현동에서는 50년, 이 집에서는 30년을 살았습니다.



아, 복현동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신 곳, 고향은 어디신가요?

오종덕 : 청도에서 7남매 3형제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쪽 청도에서 살다가 군 입대를 했는데, 성서 신병교육대를 거쳐 305대대로 갔습니다. 전화교환수로 있었고 31개월 15일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촌형님이 복현동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었고 일을 배울 겸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발소 20년을 해도 셋방, 단칸방살이 하는 걸 보고 회사 들어가서 일해야겠다고 마음 먹어서 철공소에 들어갔고, 25년을 근무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박준규라는 분이 재단도 만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철공소를 지었고 거기서 일했습니다. (9선 국회의원. 1993년 3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본인의 호를 딴 송산문화재단을 경북 달성 선산 임야 6만 평을 재원으로 설립하겠다는 내용 찾음. 현재 존재하는 재단은 없고 달성군 곳곳에 철공소가 여럿 있는 것 확인. 어느 철공소인지는 확인이 어려움)

철공소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종덕 : 도색하는 일을 했습니다. 2-3시간이면 끝나는 간단한 것이어서 11m 되는 연사 기계 옆에서 얼쩡거리다 일을 거들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117명 있는 공장에서 4년 만에 작업반장을 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고 자녀분들은 어떻게 계시나요?

오종덕 : 30살에 공장 사람 여동생과 결혼했고 2녀 1남입니다. 모두 대구에 있습니다. 막내인 아들은 올해 40살인데 대학 친구 따라서 이런저런 일(중장비, 휴대폰 판매 등)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집으로 오신 건가요? 그 시절에 다른 결혼 시기에 비해 조금 늦게 결혼 하셨는데 그 전에는 혼자 사신 건가요?

오종덕 : 전역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4년 정도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살 때는 음식할 줄을 모르니 콩나물 한 단 사서 끓여서 건져 먹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애기 데리고는 셋방살이가 싫었습니다. 첫째 딸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셋방살이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수위가 ‘이리 와 봐라’하고 불러서 갔더니 공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13평짜리 방2, 부엌1, 마당 있는 집을 보여주더군요. 당시 돈으로 400만원짜리였는데 나에겐 도지(보증금) 80만원 뿐이어서 어떻게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검단에 살고 있던 동서에게 갔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집을 샀고, 정말로 1년 만에 갚았습니다. 원래 이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나무문 짜는 공장 운영)은 부부 계모임에서 만났는데,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이라고 해서 산격동 13평짜리 집에서 여기로 들어오게됐습니다. 이사 올 때까지 관리가 안 되었던 집이었고 지금 형태로 수리하기 전에는 방이 9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쓰고 남는 방 6-7개를 대학생들 상대로 세를 놓았고, 자녀들이 크면서 그 학생들에게 과외도 받았습니니다. 학생들이 셋방을 계속 승계하면서(후배,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바깥에 전단지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잘 없는 ‘하숙’을 하신 거네요.

혹시 기억에 남는 하숙생 있으신가요?

오종덕 : 7, 8년 정도 세를 놓았는데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바뀌면서 수리하려니 돈이 많이 들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하숙을 그만두었어요. 그때 집은 서까래로 쥐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는데 고치고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집 주변에 원룸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7-8년 전부터니... 음, 기억에 남는 학생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지냈던

최희석이라는 친구가 기억나네요. (한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큰딸에게 전화 걸어서 확인하심) 딸 둘이 그 학생에게서 공부도 배우고 진로 상담도 받았습시다. 딸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고 궁금한게 있으면 저 아지아 (최희석 님)한테 물어봐라고 했습시다. 구미 출신에 착실했고 늘 공부를 하고 있었습시다. 졸업 후에 대구에 오게 되면 몇 번 찾아 왔었습시다.

셋방살이는 싫다고 시작하셔서 구한 집을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관리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이 집에 대한 감정, 애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중덕 :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집을 수리해 지었어야 했는데 2,500만원이 필요했습시다. 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리고, 하숙 놓고 일을 해서 그 돈도 1년 만에 갚았습시다. 일만 해서, 너무 바빠서 사실 그때 집에 대해 좋은 점을 많이 못 느끼고 살았습시다.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전국 안 가본 곳이 없습시다.

출장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오중덕 : 전라도, 경상도 사이 지역 감정이 심했습시다. 서로를 보는 눈이 삐딱했습시다. 한번은 광주 출신 트럭 운전 기사가 일을 하러 왔다가 점심 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고 가라고 했는데, 안 먹고 그냥 가겠다고 한 적도 있습시다. 차 번호판에 다른 지역 번호가 있으면 괜히 트집 잡아서 경찰이 불러 세우고 했을 때입니다. 트럭에 실은 것들이 무엇인지 안 하던 검문을 한다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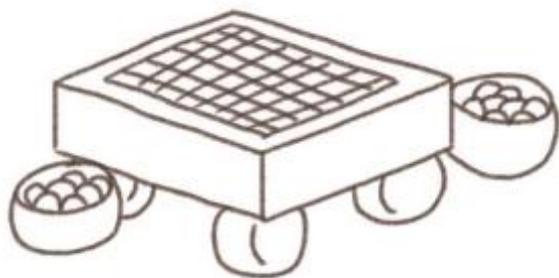


예전 복현동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나 감정은 어떠실까요?

오종덕 : 예전에는 여기에 복숭아밭과 논이 있고, 소나무도 저쪽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생긴 오솔길이 있었는데 그때가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여기 산만댕이에 양아치들이 살고 있어서 사촌형님이 “동생, 거기서 우예 살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진초등학교가 생긴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는 모두 산이었고 아들이 12살에 거기로 옮겨서 2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을 너무 바쁘게 해서 동네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철공소에서 55살 정도에 퇴직하고 나온 후에 조경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경 일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번은 젊은 사람하고 일하는데 방세를 10만원으로 싸게 빌려주어 지내게 하던 중, 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 3-4달 가량 방세를 미루다가 도망가더군요. 또 한 번은 하숙하던 학생이 2-3달 방세를 미루다가 가족이 없는 사이에 짐을 빼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술을 먹고 밤에 들어와서 자길래 깨우니 밀린 방세를 주고 가됩니다.

너무 고되게 일만 하며 살아오신 것 같은데 따로 가지고 있는 취미는 있으신가요?

오종덕 : 바둑 두는 걸 좋아합니다. 군 입대할 때 배웠고 지금은 식당 주인들 한가한 시간 2-5시 사이에 놀러가서 바둑을 둡니다. 실력은 7, 8급 정도. 바둑머리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 집주인이 바둑을 잘 두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혹시 아쉬운 것이 있으신가요?

오종덕 : 노후 준비를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음식, 식당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돈을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나이 들고는 놀랄 정도로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신경이 예민한 게 탈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잘 못 나가니 우울증이 와서 병원, 한의원을 다닙니다. (요즘들어 부쩍 예민한 것에 대한 이야기 길 하다가) 옛날 이 집이 무허가 슬레이트집이어서, 건축일을 하는 큰집 큰형님 도움을 받아 수리를 하려니까 동사무소에서 자꾸 나와 수리도 못 하게끔 자꾸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땀흘려 번 돈인데 한 번 부숴봐라!” 하며 엎포를 놓았습니다. 사진도 못 찍게 했어요. 뭐라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손사래치던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기까지



2019 복현유사
'제비이야기'
'수수께기의 향아리'
청년편찬자 김현진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옛 마을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 상상했습니다. 새가 되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고 저는 복현1동 피란민촌에서 나고 자란 한 제비의 입을 잠시 빌렸습니다. 예로부터 사람과 가까우면서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제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집의 모양, 골목의 길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세한 이야기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기억을 조금이나마 따라다녔던 시간이 모두 즐거웠습니다. 하경진 선생님은 주민분들 중에서도

동네 일을 다 맡아서 하시는 청년에 속하셨습니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글 쓰는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봄이 왔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제비처럼 복현동을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려는 분들의 노력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복현유사에 참여해 오종덕 어르신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썼습니다. 익숙한 모습의 집과 골목들인만큼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또 새로이 만난 오종덕 어르신으로부터 사람, 일, 집에 대한 다채로운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전 지역감정이 심했을 적 에피소드와 하숙생들과의 크고 작은 사건들 사이에서 사람에 대한 어르신의 숨숨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 애정은 어르신이 사시는 집의 작은 마당 한가득 식물을 심고 텃밭을 일구는 모습에서도 묻어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뒤이어 어디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 집을 얻기까지 어르신이 평생 일하고 노력하신 것들을 어루만져드릴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가 절로 떠올랐습니다.** 짧은 글 한 편이지만 오종덕 어르신의 삶과 복현마을에서 함께한 이웃들의 행복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술을 듣고 기록하는 경험은 늘 매력적입니다. ‘나는 얘기할거 없다’라고 손사래치던 어르신들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온 세월을 풀어내시는 걸 보다 보면, **나의 ‘듣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특히 복현유사는 어르신들이 무작위로 던지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짜맞추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 대한 어떤 기억은 모두가 같은 그림이고 시대에 대한 어떤 기억은 서로 다른 그림이어서, 듣기가 끝나고 나면 메모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의 쓰기 과정 - 실제 구술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설화, 민담의 형식으로 다시 쓰는 동안 잊고 있었던 어릴 적 상상력을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듣기의 횟수가 좀 더 많았다면, 더 깊은 맛이 우려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다음 해에도 복현유사가 이어진다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자세히 보니 예쁘고, 오래 봤더니 정겹다 복현1동이 그렇다

주민구술자 채인수 편찬자 장준원

안녕하세요, 채인수 어르신. 이번에 복현유사라는 어르신들 이야기로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장준원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요즘 복현동에서의 평일, 주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채인수 : 주말에는 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현동에 있는 복현교회에서 20년간 장로생활을 하다가 3년 전 은퇴하고 지금은 원로장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평일은 주로 경북대학교 내 만오정, 지도연못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기도 하고 20대 시절을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복현동에 살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채인수 : 제가 태어난 곳은 반야월입니다. 반야월에서 지내다가 1950년 6.25사변이 터졌습니다. 일제해방 후 반야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6.25 사변으로 학교가 휴교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인민군의 탱크를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공습경보, 피난생활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니다. 국가에서 군인들에 대한 배려로 마술을 보여주거나 위문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으로 가서 살다가 1963년 10월 경 부모님과 복현1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경북대학교 내 4,500평 정도의 토지에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복현동에 오시고 살아가시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나요?

채인수 : 저는 바르고 곧은 말을 잘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과는 잘 섞이지 못하
는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한 분 꼽으라면 복현교회 선임장로이셨던, 지금은
청도에서 선교사역에 애쓰시는 임백중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어르신께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니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복현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채인수 : 경북대학교 내 만오정(晩悟亭)이라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평일에 만오정 앞에 앉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주로 사색, 명상, 기도를 합니다.

어르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채인수 : 색소폰 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색소폰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매일 연습을 하다보니 귀에 이상이 생겨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취미로는 식물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현교회 앞을 지나가면 다양한 나무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제가 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복현동 안에서만 10번 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채인수 : 복현동에 정착하고부터는 복현 1동 내에서 10번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 은하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민중의 삶이 예전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초근목피로 해방 후 산에 있는 풀뿌리라는 풀뿌리는 모두 아궁이에 화목으로 사용했고 산은 모두 민등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해 현재 한국은 산림부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생후 22개월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1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유아 사망률도 매우 높았고 사람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유년시절에는 꽤나 유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발자전거를 타고, 금단추가 달린 양복을 입었으며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를 키워주신 계모님을 서너 분 정도 만났지만 모두 너무 좋은 분들이
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구박하신 적이 없고 늘 아껴주셨습니다. 좋은 분들
덕에 지금 제 성격이 당당하고, 강직한 성격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복현동 일대에서만 59년을
거주했습니다. 1980년 경 저는 반야월에서 주택 자제생산 사업을 하였고,
경북도청에서 공직에 몸 담기도 했으며, 집안의 산에서 소나무 벌채, 묘목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
다. 제가 10번의 이사를 한 계기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초반에는 잘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후 복현동에서 청과사업을 경영하여
제 자식들을 모두 길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복현동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인수 : 지금의 복현동은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현동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며 예산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 4년 전 복현동 행정복지센터와 대구도시공사에서 동의서를 받는 데에 반대를 했습니다. 재생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면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않는 보상금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농원에서 아내와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연이 꽤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채인수 : 저는 1963년 부산에서 대구로 올라와 20대에 경북대학교 테크노 빌딩 복현동 593번지에서 4,500평의 포도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 복현동은 상수도가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큰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현재 제 아내의 동생이 물을 길다 따리박 끈을 놓쳐 샘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는 일꾼을 시켜 사다리를 놓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인연이 되어 2년 후 현재의 아내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어머니의 친정이었던 경산에서 제 외가와 처가가 의형제를 맺은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의 친정은 어르신 집안이 유식하고, 지역 일원에서 유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늘이 맺어준 천정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조상님의 음덕으로 지금 제 아내와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남 3녀의 자녀를 낳고 모든 자녀가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해하니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020 복현유사
'하룻밤의 꿈'
청년편찬자 장준원

역사는 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의 역사는 중요 사건들만을 기록하는 협소한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구청과 복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다룹니다.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청년들이 기록하는

'복현유사'는 잊혀지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복현동에서 거주한 채인수 어르신과 함께한 첫 인터뷰에서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해주셨고 복현동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와 채인수 어르신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할 수도 있는 인터뷰였지만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채인수 어르신의 자택에서 진행했는데 첫 인터뷰 때 카페에서의 어색한 분위기와는 달리 자택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에서는 어르신께서 한층 편한 표정으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엔 어르신께서 하고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 상세히 듣지 못했지만 이번 인터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채인수 어르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의롭고 옳고 그림이 분명하며 의협심이 강하십니다. 과거 수성구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했을 적에도 주민들의 불합리한 결정에 반발했다고 합니다.

남하고 쉽게 융화될 수는 없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갈대처럼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신 할아버지의 강직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이웃 없이 홀로 계실까 걱정도 됩니다.

복현 1동의 일부는 과거 한국전쟁으로 삶을 잃은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비탈에 집을 짓기도 하고 국유지나 사유지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때 지어진 주택들은 너무 더덕더덕 붙어있어 골목길로 행인 두 명이 지나다닐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지금의 복현1동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많은 추억들이 생산된 곳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지역을 재생한다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온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다수의 생각으로 소수의 지역민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복현1동을 기억하고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나 직장 문제, 인터넷의 발달로 한 사람이 속하는 지역사회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또 마을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기존 도시의 문화, 경제, 도시재생 사업은 이전 주민들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복현 유사를 통해 들여다 본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만들고, 노후화된 근대 역사 건조물 재활용 방안 강구,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된 지역 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함양하며,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의한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현재 동네의 원형을 유지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낙후 지역의 주택 개량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일자리 제공, 범죄 예방, 안전, 교육, 보건 등 통합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률적인 전면 철거 방식을 벗어나 지역단위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역사가 담긴 장소를 무작정 재개발 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과 함께 기록하고 남기는 작업이 있어 재생사업이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참뜻은 어제의 사실을 그저 지난 일이나 흥미있는 이야깃거리쯤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내일을 설계하는 디딤돌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사실과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생생히 녹아 있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 땅에 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일구어 왔는지 살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하였을지 되물기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따뜻한 인간, 살아있는 인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 부족하지 않게, 밥은 항상 넉넉하게

주민구술자 배옥자 편찬자 이슬기

안녕하세요, 배옥자 어르신.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배옥자 : 네, 괜찮아요. 오늘은 그래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배옥자 어르신은 인터뷰가 성사되기 전 몸이 편찮으셔서 어렵게 만나보았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죄송하죠... 저는 이번에 복현유사라는 어르신 이야기로 글 쓰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슬기라고 합니다. 마음 편히 그냥 손녀한테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 복현동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배옥자 : 원래 고향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6.25전쟁 때 내려와서 영천에 있다가 중매로 대구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온지는 47년 된거 같은데 오고 나서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채소장사도 해보고 포장마차도 해보고 노가다에 용역도 해봤습니다. 딸을 출산한 후에는 가슴 수술도 4번이나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어지럽기도 하고 몸도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음식솜씨가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배옥자 : 제가 정이 많아서 밥을 자주 해줍니다. 자식들에게 아직도 물김치, 무시, 열무김치 같은걸 해서 주곤 합니다. 자식들이 맛있다고 하면 더 해주고 싶습니다. 자식들은 힘드니까 하지말라고 하는데 어제 아래도 물김치를 담갔습니다. 멸치도 볶고 쥐포도 볶고... 경로당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밥을 한 2년 가까이 해줬습니다. 내가 경로당 총무를 3년정도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1년은 밥을 못했습니다. 내가 밥 할 때 모두 “배 총무가 해서 밥 잘먹었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진짜로 많이 들었어요.

자신 있는 요리가 따로 있으신지?

배옥자 : 옛날에는 꿀밤을 주워서 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지금은 못 합니다. 뚝배기에 밥을 해서 남은 누룽지를 끓여먹어도 맛있습니다. 식초, 소금하고 삼성당하고 결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지금 술밥도 해봤습니다. 술 만드는 누룩을 이용해서 밥을 삭게해서 숙성시킨 음식인데 그것도 맛있습니다. 내가 밥을 못 먹으니까 그걸 대신 먹는데요, 새콤달콤한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먹을겁니다. (어르신이 주신 술밥을 직접 먹어봤습니다.) 내가 어릴 때 영천 완산동에 살았는데 그 때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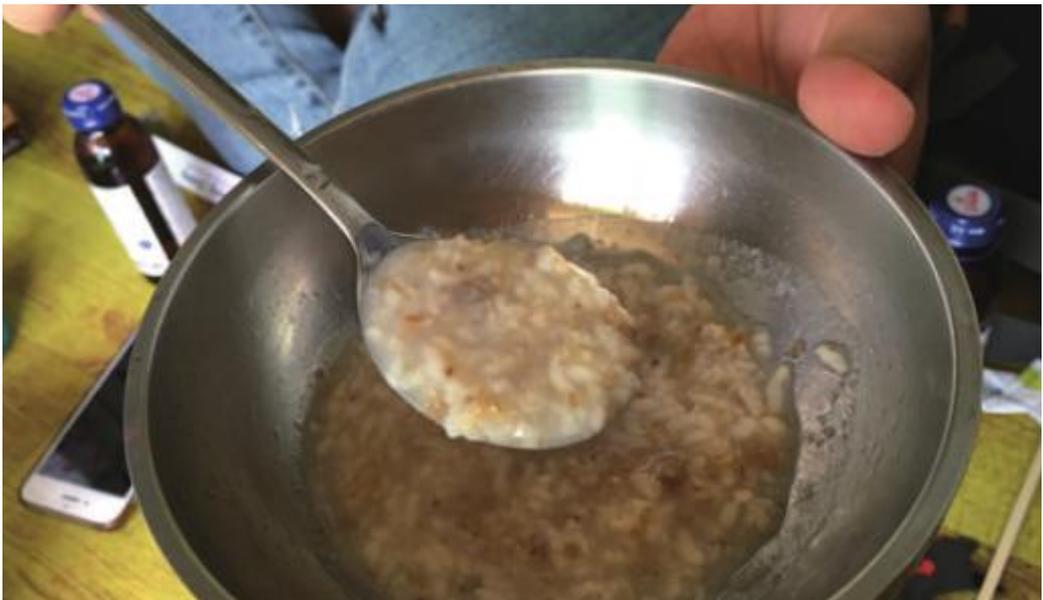


음... 말씀하신대로 진짜 저희는 입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새콤달콤한 뭔가 특이한 맛이 매력적이네요. 복현동에서 드셨던 것 중에도 생각나는 음식이 따로 있으신지?

배옥자 : 옛날에 등산을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죽을 뜬어와 생쌀에 담귀서 갈아 먹은 음식이 기억납니다. 설탕과 섞어서 찌면 약간 버무리같은 음식이 됩니다. 떡은 아니지만 등산 다니면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경로당 총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배옥자 : 경로당에서 총무를 3년 했습니다. 경로당 분위기 살린다고 주말에도 안 놀고 계속 밥을 해줬습니다. 경로당에서 내가 밥을 할 때 다들 좋아했었는데 제일 인기많은 메뉴는 무시(무 채썬 걸절이 혹은 싹무 같은 음식), 우영볶음이었습니다. 나는 흔히 생각하는 채썬 우영이 아니라 생 우영을 그냥 볶는데 그렇게 하면 향이 살아있습니다. 내 우영볶음을 먹어본 사람들은 채썰어 둔 우영볶음은 못 먹더라구요.



배옥자 어르신이 만들어주신 술밥

경로당에 나가지 않으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배옥자 : 주로 집에 있습니다. 오후되면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먹을걸 많이 해줬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몸도 안 좋아서 잘 못합니다. 그래도 며칠전에 수제비를 끓여서 다 같이 해먹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해서 먹을 걸 해 놓으면 동네 사람들 여러명이서 먹습니다. 주로 보리밥에 비빔밥을 해서 같이 먹곤 합니다. 여기 다 앉으면 한 7~8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눠먹던 이웃들이 많이 이사가고 그러진 않았는지?

배옥자 : 원룸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나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요새는 그 이웃들이 50명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밥 먹는 사람도 많이 줄어서 약 2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노노케어*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몸이 남아나질 않으셨겠어요.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말)

배옥자 : 원래 가정방문하는건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케어를 받아야 할 처진데 돈을 주니까 하고 있어요. 한 분이 라도 내가 벌어서 살아야겠다 싶어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근처에서 장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장사하셨던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실래요?

배옥자 : 포장마차를 했었습니다. 떡볶이도 팔고 호떡도 굽고 했어요. 원래는 칠성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세탁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하고 나서 돈을 줄테니 그만 하라고 해서 그만뒀다가 결국 다시 노가다판에 나가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경로당 총무를 다시 하고 싶진 않으신지?

배옥자 : 내가 몸이 괜찮으면 더 해주고 싶어요. 그건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내 음식 먹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시장가면 장을 봐옵니다. 지금은 그냥 화투치는데 예전에 총무할 때는 바빴습니다. 반찬도 만들어놓고, 김치도 담고, 커피포트에도 물 넣어두고 식재료 삶고 무치고 남은 밥 있으면 몇 명이 저녁도 먹고 했습니다. 진짜 내 집 살림처럼 했습니다. 나는 항상 사람이 더 올때도 있고 덜 올때도 있고 하니까 항상 좀 넉넉하게 했어요. 봉사한다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끝을 못 내줘서 미안합니다.



꼭 다시 올게요, 복현동에



2020 복현유사
'시간을 돌리는 해바라기'
청년편찬자 이슬기

저는 예전에 복지관에서 일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항상 우리 주변의 일들, 동네의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현유사 역시 이름에 들어가는 것처럼 동네,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낯선 지역이지만 정감 가는 동네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난 배옥자 어르신은 한 눈에 봐도 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에게 음식을 권하셨고 경로당 얘기나 동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사람들과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 나오셨어요. 항상 베푸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여전히 베풀고 싶어하시는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참 많이 하신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안 해본 일이 없다고도 하시고, 6.25전쟁 때 고생하신 얘기, 일하면서 고생하신 얘기를 하실 때는 제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대로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배옥자 어르신을 통해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배옥자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대가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냥 베푸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거 같은 분이시라 많이 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사회에서 흔히 다들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경계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 역시 이해타산적이고 조금은 계산적이게 된 자신을 보고 반성한 적이 많아요.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신 분이데 몸이 편찮으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배움으로 즐거움을 느껴오신분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얘기에서 예전 사람 냄새나고 정 많던 복현동에서 지금의 약간은 쓸쓸하고 어수선한 복현동으로의 변화에 대한 아쉬움도 짙게 느꼈습니다. 인터뷰 내용 자체가 할머니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동네 자체에 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복현유사라는 의미있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어르신들 이야기 듣는 것도 재밌었고, 아직 정이 느껴지는 복현동도 좋았고, 이야기를 적는 일도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새롭게 이야기를 적으니 훨씬 더 보람있었고 몰입도 잘 됐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낯선 동네지만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동네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복현유사가 2019년에 이어서 2020년 두 번째로 진행된 사업인데 앞으로 복현동 모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게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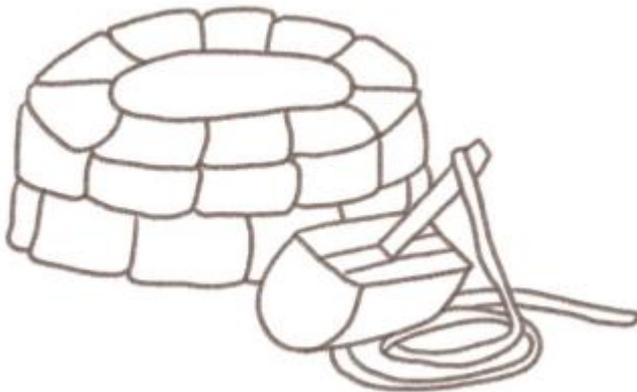
복현유사에 참여하고 배옥자 어르신을 만나뵙기 위해 복현동을 다녀보니 옛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누가 이웃들을 위해서 배옥자 어르신처럼 밥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 복현동은 모든 집이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돼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흔히 말하길 ‘옆 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던’ 그 시절이 아직 남아있는 동네가 복현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시오고 싶고, 배옥자 어르신도 복현유사가 끝나고도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다시 뵙고 싶어요. 그 때까지 꼭 건강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성실과 정직은 절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주민구술자 박인옥 편찬자 정혁진

안녕하세요! 이번 복현유사 사업에 함께 하게 된 청년 편찬자 정혁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라 ‘뭘 그런걸 묻노’ 하시겠지만 맘 편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르신께서 복현동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인옥 : 저는 구미에서 태어났고, 15살에 복현동에 와서 유년시절을 보냈어요. 충청도로 시집을 가서 2년 정도 살다가 다시 복현동으로 왔습니다. 1967년에 이 집으로 오게 되었고 집에서는 우리 할아버지(남편)랑 어머니(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 동네에 정이 많이 없었지요. 왜냐면 당시에 저마다 어려움을 겪고 정착한 사람들이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군요. 당시 복현동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박인옥 : 아까 말했다시피 옛날 복현동은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무법지대라는 말이 잘 어울렸고, 싸움도 곧잘 일어났어요. 다들 먹고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복현동에 있으면서 특히 힘들었던 점은 물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예전 복현동에 복현시장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 물을 공급받았었어요. 그러다보니 물이 모자라던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빨래를 한 번 하려면 동천까지 갔어야 했어요. 물을 기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좋았던 기억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 인식은 안 좋았지만, 동네 사람들끼리 분위기는 참 화목했지요.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면서 이웃끼리는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서로 힘든 일들을 도왔어요. 음식을 나누어서 같이 밥을 차려서 먹고, 동네 사람들끼리 주기적으로 여행도 많이 갔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었지요. 지금은 보기가 힘든 모습이지요.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물을 기르는 것 말고는 힘들었던 점이 없으셨나요?

박인옥 : 참 많았죠. 물을 기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살고 있던 집을 수리해서 확장을 했었는데, 당시 법적인 문제로 집을 개조하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수리했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수리한 집을 다시 부순 적도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야속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던 주민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참 힘들었지요. 지금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속상하셨던 일들이 많으셨네요.

그러면 복현동으로 오신 뒤로 생계는 어떻게 이어오셨나요?

박인옥 : 함께 살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복현동에서 야채를 팔았습니다. 할아버지(남편)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고, 자식들을 키우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지금은 아들딸 모두 잘 자라주어서 별다른 걱정이 없지만, 당시에는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참 잘했다고 느끼는 건, 남한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자고 마음먹었고,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혼자서 자녀분들을 양육하셨군요. 어르신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박인옥 :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나를 자주 보러 오곤 합니다. 딸이 와서 툼툼이 청소를 해주거나 음식을 차려주기도 하고 아들도 번듯하게 자라서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잘 키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직을 신념으로 삼아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키웠어요. 특히 자식들이 어릴 때, 참 착했던 기억이 있어요. 개들 할머니(시어머니)가 먹던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씹어서 할머니 입에 넣어주고는 했지요. 또 요강도 비워주고 청소도 군말 없이 해주었어요. 사실 요즘은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또 내가 혼자서 키우려고 하니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은데 애들이 참 정직하고 훌륭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늙어서 그런지 가끔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박인옥 구술자의 부부사진

자녀분들이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만큼 빈자리도 크시겠네요...
살아오신 동네, 복현동에 대해 앞서 화목했던 이웃들 이야기해주셨는데
자랑거리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박인옥 : 큰 자랑거리라고 할 것은 없지만, 예전에는 복현동이 무법지대라는 말을 했었지요? 소위 깡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술을 마시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동네에서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뻘 되는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자라주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복현동에서 경찰청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왔는데 예전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복현동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선이 바뀌도록 사람들이 노력을 해준 것 같아서 자랑스럽지요.

자랑할만하군요... 복현동에서 혼자 지내게 된 건 언제부터 셧나요?

박인옥 : 2014년도부터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전에는 시어머니, 할아버지(남편)랑 같이 살았었는데, 1970년대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14년 12월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도 복현동에서 같이 살았지만 다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느라고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도 떠나고 나서는 혼자서 많이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특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 고생하신만큼 몸이 많이 편찮아지신 게 마음이 아프네요... 인터뷰는 이 질문을 끝으로 마칠까 합니다. 복현동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박인옥 : 지금은 예전처럼 동네 주민들끼리 화목한 분위기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떠나보낼 때 상여를 함께 지고 장례를 저희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지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시어머니 보내는 길이 외롭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민들끼리 상부상조하거나,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하는 등과 같은 분위기는 사라졌지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겠죠? 젊은이들의 태도나 주민들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점이 특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복현동에 대한 재개발을 오래전부터 바라왔습니다. 시에서는 항상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는 말은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연하지 않게 됐고 이제는 딱히 바라는 것이 없고, 남은 삶을 그저 함께 살았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이 남아 있는 복현동에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한 마음 값진 배움을 얻었던 시간



2020 복현유사
'그리운 어머니'
청년편찬자 정혁진

저는 복현동에서 6년째 살고 있어요. 원래 고향은 대구가 아니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 대구에서 쭉 지내 왔어요.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 복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현동 주민인 누군가와 만나거나 하는 일은 잘 없었어요. 주로 학교를 통해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실제 복현동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또 저는 복현1동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미공원 바로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길을 지나다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인지, 어르신들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복현유사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처음 박인옥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힘든 일이 많으셨고, 속상한 일들도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과거의 우리나라는 남성 편향적인 면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홀로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가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고되셨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박인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복현동의 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복현동이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좋지 않았다는 점, 저도 자주 지나가는 복현시장에 우물이 있었다는 점 등... 과거 복현동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복현동이 그런 좋지 않은 인식을 깨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된 것은 어르신들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현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어르신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저는 이번 복현유사를 통해서 **어르신들, 기성세대에게 감사함을 가장 크게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쉽게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현유사를 통해 특히 이런 점들을 더욱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풀고 싶었는데, 저는 글 솜씨가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또 박인옥 어르신的人生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특히 많은 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정직과 성실이라고 듣는다면 누구나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평생을 실천으로 옮기고 살아오신 모습에 존경심을 느끼고 제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복현유사 진행 당시에도 문제가 되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조금 더 어르신과 많은 이야기를 가까이서 나누고, 더욱 자주 뵙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질 못 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느꼈던 점이 많아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복현동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복현1동의 경우에는 근거리 대학교가 많아서 특히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사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다들 떠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인터뷰를 함께 한 박인옥 어르신과 같은 분들은 이곳에서 꼭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정말 복현1동의 주인이자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분들을 위해 복현유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꼭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복현유사를 참가해야겠다고 처음 마음먹을 때만 해도 코로나 덕분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여러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잘 대처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글 솜씨가 부족한 저에게 처음으로 창작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도 되었고, **무엇보다 박인옥 어르신과의 만남은 그 어느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마을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

주민구술자 강순덕 편찬자 김현진, 박예찬

안녕하세요, 강순덕 선생님. 이번 복현유사 사업에 편찬자로 활동하게 된 박예찬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려는데 이것저것 여쭙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순덕 : 네, 반갑습니다. 복현1동 주민협의회 대표 강순덕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과 복현동에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었나요?

강순덕 : 경남 창녕에서 9남매 중 여덟째 딸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한 청년과 3년간 펜팔을 주고 받다가 귀국 후 상견례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집살이를 하다 대구로 내려왔고 대명동 조카집에서 사는 등 몇 번 이사하다가 1979년에 현재 복현동에 정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혹시 장래희망? 꿈이 있으셨나요?

강순덕 : 봉사의 꿈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여군이나 경찰이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지역 농민교육활동에 참여해서 농민들에게 농사지식을 지도하기도 했어요.

복현동에서는 그 꿈을 펼치셨는지?

강순덕 : 네, 최대한 노력했죠. 복현동에 온 후 당시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했던 몇 분의 어르신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양로원, 장애인 봉사를 포함해서 마을축제, 기부 바자회 등 많은 행사들을 주도해 진행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데에 꼭 필요한 가치관 혹은 지향점이 있으시다면?

강순덕 : 제가 복현동에 정착한지 얼마 안된 시절에 당시 저의 멘토나 다름없었던 분들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 새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직과 성실입니다. 똑바로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뒷말하지 않고 앞에서 진솔하게 말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고 누구도 소외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 안고 늦더라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천천히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현동에서 이웃과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강순덕 : 저희 마을이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었고, 남에게 나눠줄 때 그래서 상대가 기뻐할 때 흐뭇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가 있을까요?

강순덕 : 옛날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신해서 정부혜택을 받게 도와드리려고 동사무소 다니면서 주민분들을 연결해드렸는데, 그분이 필요한 혜택을 받았을 때, 마치 제가 받은 것처럼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직접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특히 그런 정보를 알고 신청이 어려운 가정일 때는 주민 대표가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복현1동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가장 그리울 것은?

강순덕 : 옛날에는 제 또래가 4,50명 있었고, 함께 지역 일을 하며 어르신에게 베풀며 했는데 지금은 많이들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복현1동이 제2의 고향입니다. 잘 지내왔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주민들과의 관계,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강순덕 :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적을 두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주민들과 관계해오고 노력해왔습니다.

복현동은 000한 마을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채워본다면?

강순덕 : 복현동은 인정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마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옛날 시골 동네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할 때나 지나가다가도 그냥 들어와서 먹고 가고. 이런 정이 두터운 동네입니다.

주민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강순덕 : 우리 주민들도 남 험담 안 하고, “아이고~” 하면서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그런 정겨운 사람들이죠.

네, 저로서는 그게 신기했어요 . 길 가면서 다들 아시는 게..

강순덕 :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가잖아요. 여기는 “아이고 오늘은 뭐하러 가노” 하고 묻고.. 그렇게 지내요.



마을활동을 오랜 시간 동안 하셨을 텐데, 하면서 어려웠던 사건이나 부분이 있다면?

강순덕 :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봉사 해왔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복을 받았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말하는 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높게 쌓이는 것처럼 제 인생에는 사람들의 정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남한테 실수한 건 없는지 조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하다 보면, 어르신이 하고 싶은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강순덕 : 여러 사람들의 뜻을 들어봅니다. 저 사람은 의사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기울어지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을 잘 안 세우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주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서 될 것과 안 될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후 제안하고 권유합니다. “이거 구매하자,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 사보는 건 어떻겠나?”는 식으로 의견을 구합니다. 앞에 서서 가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지... 내 주장을 세우면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강순덕 :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만으로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역에 대해 알고 사랑할 때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일을 만들어내려면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오기 좋은 마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혹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강순덕 : 청소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잔소리 같이 느껴지겠지만 단속해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배달 시켜먹는 횡수가 많아지면서 쓰레기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쓰레기가 덜 배출되도록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강순덕 :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가까이 경북대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마을로 들어와서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 알고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세상이 더 살기 좋게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미래가 있더라



2020 복현유사
'복현동을 바라보다
답아진 소나무'
청년편찬자 박예찬

지난 여름, 복현유사 편찬을 위해 강순덕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복현동 마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늘 마을 사람들, 활동 이야기가 먼저 오르내렸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족을 붙이지 않더라도, 인터뷰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신다면 누구라도 마을에 대한 강순덕 어르신의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글로 녹여 낸다는 건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이번 기회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덜컥 복현유사에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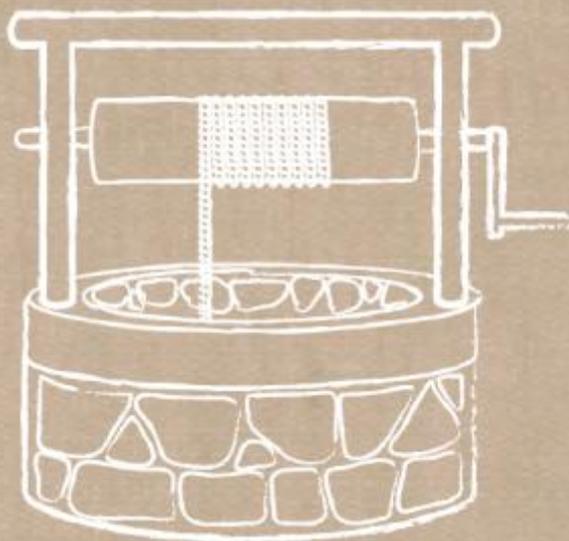
추억팔이는 단순히 과거에 취해 즐기는 한순간의 유희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특히 복현동 주민분들처럼 예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나눠 온 곳이라면 말이죠. 인터뷰를 하고 글을 구상하면서 그런 기억들을 곱게 담아내고 싶었지만,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다른 편찬자들의 글이 작은 물결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인터뷰로 함께했던 강순덕 어르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진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진 앨범에, 기록에, 자료까지 다 꺼내 오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덕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어르신 세대는 ‘과거’, ‘지난 시절’과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고민하며 미래를 꿈꾸는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 저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뷰 중 하셨던 여러 말들이 생각납니다.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들이 귀에서 쉽게 휘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삶을 거친 생각과 말씀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선명히 남아 있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귀에도 꼭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록

복현정담
伏賢情談



복현1동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은 주민과
청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 전임자들이
기억하는 복현동 이야기와
복현유사를 총괄 운영한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주은 팀장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인터뷰 진행
이주은, 최서현, 심재신



기억속의 복현동 1

구불구불

미로 속

정감 있는 동네

고진호 (북구청 신성장전략국 국장)

윤경옥 (북구청 도시재생과 뉴딜2팀 팀장)



고진호 국장님, 안녕하세요! 복현동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2년 4월 ~ 1995년 6월까지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 (구. 복현1동 동사무소)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복현동에서 근무하실 당시에 물리적인, 환경적인 여건은 어땠나요?

영진전문대 있는 곳에 예전에 육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년 전에 저녁이 되면 육교 건너편에서 학생들이 과별로 모여서 회식도 하고 식당가들이 활발했었습니다. 골든플라자 건물이 복현동에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해결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마을 길이 대체로 흙길이었나요?

그 당시 큰길은 포장이 되어있었습니다. 포장이 안된 곳도 조금 있었지만, 경진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도 신경 써야 하고 피란민촌 길은 혼자 찾을 수 없을 만큼 복잡했어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셨고 집을 찾아다니면 바로 길옆에 방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번지도 617-8번지로 하나로 묶여있어서 통장님이랑 같이 다니지 않으면 몰라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님이 안 계실 때 찾아가려면 지도가 필요했는데, 지도를 통장님께 그려달라고 해서 그걸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곤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담당자가 오면 그 지도를 족보처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에도 똑같은 지번이라 찾을 수 없었지요.

상하수도 시설은 어땠나요? 집집마다 물은 잘 나왔나요?

일반 주택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서 물이 잘 나왔고, 피란민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동네에 수급 용품 공급을 위해 차에 실어서 나눠드렸었는데 쌀, 연탄 등을 나눠드렸습니다.



윤경옥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현동에서 근무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진호 국장님과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는데요. 91년도 복현동 근무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이 잘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 농협에서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를 복사하여 발급해 주곤 했는데 자꾸 부탁하기 미안해서 직접 적어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이름을 한자로 적고 있으면 그림을 그린다고 웃으시곤 했어요. 지금도 복현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농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을금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가 있어도 통장님들이 회의할 공간이 없어서 마을금고 회의실을 이용했어요. 지금은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통장회의를 합니다.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건물이라 좁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도로와 접해있어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집을 찾아다니셨다고 했는데, 집 구조는 어땠나요?

길 하나를 두고 사시는데 길 양쪽이 마당이고, 대문이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방문이고, 부엌이었습니다. 길이 마당이었지요. 그때 복지담당자들이 애를 먹었는데, 구역 담당 직원들이 협조를 잘해주었지만 길이 헛갈려 물건을 배달하고 나눠줄 때 애를 많이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모임 행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나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동에 축제는 없었고,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협업체 강순덕 대표님이 새마을부녀회 총무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구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잘 모여서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그 당시 복현1동 인구는 10,000명 정도였고 19개의 통이 있었는데, 복현2동보다 인구가 적고 617-8번지가 있지만 동구의 경계선 상에 있고 경대와 같이 있는 입지조건으로 주민들이 오래 정착하는 안정적인 동네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사고나 주민들과의 추억 등 생각나는 일이 있나요?

단체들이 모여 윗놀이를 하며 화합의 장이 활발했습니다. 복현1,2동을 보았을 때 복현1동은 아파트 재개발 같은 큰 발전이 없어서인지 단합이 더 잘 되고 정이 넘치는 동네였습니다. 당시에는 복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복현1,2동 주민들이 복현시장을 많이 이용하곤 했습니다.

복현동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구불구불 미로 속 정감 있는 동네입니다. 구부러진 길이 목적지를 찾기 어렵고 가는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더 주의깊게 볼 수 있잖아요? 복현동은 그렇게 정이 가는 동네입니다.





기억속의 복현동 2

어려운 형편 속에도
인정이 넘치는
부지런하고
깨끗한 동네

권혜경 (칠성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복현동에 근무 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1991년~1995년까지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복현동 근무 당시 물리적, 환경적 여건은 어땠나요?

복현1동 617-8번지는 주민들에게는 통상 72번지라고 불렸습니다. 그 일대가 도시재생 지역인 것 같은데 72번지는 한 지번인 시부지 위에 피난민들이 여러 가구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형성되어 관내 지도에는 수십 가구가 한 개 지번으로 토지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3통~5통을 걸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복현1동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라 72번지 중심인 4통을 담당하게 되었고 해당 가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전 담당자로부터 전해지는 손그림지도 1장을 들고 출장을 나가서 길을 찾기 어려워 헤매다 우편 배달을 하시는 우체부 아저씨께 도움을 구해서 집을 찾아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통장님이 손으로 그린 지도라고 하시는데 골목과 집만 표시되어 있어 처음에는 정확하지도 익숙하지도 않아 힘들었고 다음 담당자에게 전해주기 위해 다시 수정하여 새롭게 만들어 전해 주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최대 장점은 대문이 늘 열려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자는 대상자를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마을 소식이 항상 공유되고 있어서 통장님들께 집안 사정에 대해 물어보면 위기가구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장님들이 마을의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집 규모가 작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이었지만 집 내부는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는 정서가 훈훈한 동네였어요. 출장을 가면 주민들이 가정 방문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구호물품을 옆집에 맡겨놓고 전해달라고 하면 흔쾌히 받아주시는 인정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그 당시 공동화장실 관리 업무도 제가 담당했었는데, 화장실이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은 거의 없었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안쪽에 건물 하나가 공동화장실로 사용되었는데, 양쪽으로 5칸 정도 있었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나서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주택 상황은 어땠나요?

처음 마을이 형성될 당시에는 판자로 집을 지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블록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구조의 집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과수원이 많았다던데, 농사를 짓는 곳이 있었나요?

그건 이전일 거예요. 제가 출장 다니면서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빨간 벽돌집도 있고 슈퍼도 있었는데 과수원으로 보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나요?

통장님들이 피란민촌 중앙통에서 가게를 하셨는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주민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님 가게가 사랑방 같은 장소였지요.

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있었나요?

그 당시 강순덕 주민협의회 대표님이 새마을부녀회 회장이셨는데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동네에 많이 살고 계셔서 마을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복현1동을 피난민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르신들이 마당을 쓸고 닦고 청소를 잘 하셔서 깨끗한 동네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서로 배려하며 모든 활동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동네였습니다.



전기나 물 공급은 잘 되었나요? 공동우물이 있었나요?

집에 전기와 물은 다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들샘공원 쪽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쪽에 꽤 큰집이 있었어요. 3통 끝에 슈퍼를 하시는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두 분 다 연로하신데도 동네를 돌아다니는 노숙인 할머니를 딱하다며 돌봐 주셨어요. 그분은 무슨 사연인지 절대 방에서는 안 주무시고 밖에서만 주무시던 분이었는데 불쌍하다고 처마 끝에서 밥을 준비하고 드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돌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복지 현황은 어땠나요?

북현1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동네가 아니지만 사회복지 대상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120가구가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87년에 쌀 배급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91년에는 시민운동장 옆에 양곡 배급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보호 대상자에게 양곡 카드에 대상자 확인을 해드리면 배급소에서 배급을 받아오셨는데 멀고 무거워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직원들이 대상자들의 불편을 건의하여 강남·강북 두 개소로 나뉘서 배달해 드리다가 나중에는 각 동으로 배달을 해드렸고 그 뒤에 현금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지원이 달랐는데 연세가 많고 혼자 사는 어르신인 거택 보호자에게는 쌀을 주고, 자활 보호자는 병원에서 의료보호 혜택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쌀 배급을 했었는데 자동차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없어서 배달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명절에는 후원물품이 많아서 통장님이나 교회에 트럭을 빌려서 각통으로 배달했고 그때 다른 직원분과 통장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방구를 하시던 3통장님, 4통장님, 5통장님 참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가 오르막이라 배달하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수급자 지원방법이 현물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사고나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어려운 계층을 담당하다 보니 치매가 있는 노인이 계셨는데, 집에 가둬져 방치되어 있어서 가족에게 설득하여 병원에 모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렸던 사연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임용되면 현장 방문을 최고의 업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현장 방문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연세가 많은 70대 이상의 장기 거주하시는 고령층이 많아 늘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복현동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려운 형편 속에도 인정이 넘치는 부지런하고 깨끗한 동네입니다. 주민분들 인터뷰를 해보고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가시며 삶과 마을을 일궈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자제분들도 다 훌륭하게 크시고 또 세상도 그 때 보다 더 살기 좋아졌겠죠.





기억속의 복현동 3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되는 동네

장세만 (전 북구청 감사실 실장)



복현동에 근무 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1990년~1992년 회계업무를 2년, 1995년~2000년 서무·회계 담당 행정공무원으로 5년, 총 7년간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번 근무했습니다.

복현동은 어떤 곳이었나요?

현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72번지가 근무 당시 저의 담당구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복현동 6.25 난민촌이라 불려온 데는 한국전쟁 때 황량한 야산이었던 이곳에 피란민들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주거했던 구역으로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주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지역으로 기억됩니다. 이 지역 골목길에 들어서면 집이 웅기증기 붙어 있었고, 장마철이면 지붕이 누수되는 등 제대로 정비가 안 된 하수구가 역류되는 민원이 다반사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공동수도, 공동변소가 있을 정도로 위생적으로도 열악한 동네였습니다. 근무할 당시 대구시와 북구청 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을 2,3번 추진했지만 당시 재개발사업법상 주민 동의가 70% 이상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유지가 90%이상인 지역이라 이주비만 지급되는 보상관계로 거주민들은 어디에도 이주하기 어려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약 60%정도의 동의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매번 무산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 상태는 어땠나요?

이 지역 좁은 골목길은 비포장이었고, 장마철과 겨울철 대설이 발생하면 담당구역에 관내출장 갈 때 가가호호 방문은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북대학교가 바로 접경하고 있었는데 담벼락이 없었고 비포장 도로변 노출된 하수구만 건너가면 경북대학교 캠퍼스 내 숲길로 통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저의 담당통 구역이라 출장 나갔다가 학교 숲길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기독교학생회관에 경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지역으로 당시 취약계층이 많이 살았던 열악한 곳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수업을 경대 기독교학생들이 봉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는 것을 알고 학교가 끝난 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주곤 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북대 데모가 한창이었는데 복현1동은 학교 뒤쪽에 있어서 피해가 덜했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경대 주변 대현동 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상수도 시설은 어땠나요? 집집마다 물은 잘 나왔나요?

방법등과 같은 옥외 전기시설은 관에서 설치하여 불편은 없었고, 가정에 보급되는 옥내 전기시설은 자가 보수 등을 통한 전깃줄이 복잡하여 안전도에 위험부담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수도는 보급이 양호하였으나 하수도는 정비가 불량한 형편이었습니다. 대다수 가옥 지붕 상태가 좋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는데, 판잣집 형태의 집이 많다 보니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면 임시방편으로 천막으로 덮었고 햇빛에 노출된 천막이 노후되어 쓸 수 없게 되면 페인트에 석고를 섞어 덧칠한 지붕이 많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재산 축적이나 투기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시유지 사용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용 임대료 체납이 발생되어 동사무소 체납고지서가 쌓였을 때 참담한 심경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마을대구시지회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갚지 못하고 10년 이상 체납한 주민들의 빚을 복구청에서 탕감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은 열악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빌려줘도 갚을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축제, 모임 행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나요?

주로 경로당의 노인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당시 복현동자문위원회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복날, 명절 등에 이루어졌고, 치킨, 삼계탕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공원 명칭의 유래상 장미가 많았다는 ‘복현 장미공원’에서 복현동 주민잔치 행사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강원도집’ 식당을 운영했던 당시 바르게살기 위원장님께서 매년 복날이면 전 경로당 어르신과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모시고 냉면과 감자전, 막걸리를 대접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착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집 사장님처럼 기억에 남는 주민이 있나요?

저의 담당구역인 난민촌 지역 5통 통장으로 김천상회를 운영하던 분과 왕래가 많았습니다. 김천상회에서는 칼국수도 팔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칼국수를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했는데, 운동을 지원하는 새마을북구지회 회장님과 복현1동 새마을부녀회 총무님이 함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전봇대에 붙은 광고지, 땅에 붙은 검을 제거하고 동북로 가로에 대형 화분을 구입하여 4계절 꽃 심기 등 복현동 도시미관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담당자가 동네에서 헌 옷, 폐지를 모아 구청에 제출하고 두루마리 휴지나 생필품으로 받아와서 공동화장실에 비치하는 등 선순환 구조로 마을 공공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동마다 순위를 매겨 구호물품을 받아 갔는데 누가 더 많이 수거하는지 선의의 경쟁이 불기도 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사고가 있나요?

현재 재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물 글로벌플라자 지반 붕괴사고입니다. 당시 지하 5층 터파기 중 뒤편 빌라 옆의 지반이 붕괴되면서 앞 대로변 지반이 갈라지면서 수도관이 터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공사 구역 뒤편에 있던 빌라 주차장에 있던 차 2대가 지하로 빨려 들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 비상연락을 받고 출근하여 사고 경위, 피해주민 대피 등에 대한 상황판을 만들어 붙여놓고 구청장님 직접 총괄 지위를 하며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라 주민 32세대 전원 인근 여관 등에 대피 조치하고 생필품 지원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사고 다음날 적십자사 측에서 보내온 응급물품을 지원하며 피해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대구시와 북구청은 피해 빌라에 대한 안전 진단과 건물 붕괴 지반에 대한 점검을 착수하여 약 15일만에 붕괴지반 보완과 빌라의 안전성을 전달받고 주변 빌라 32세대 입주를 허용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기억입니다.

복현동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낙후되었지만 복현오거리와 우수한 경북대학교를 접하면서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동네입니다. 대학과 가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묵히지 않고 잘 살려서 주민과 청년이 함께 더욱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면 좋겠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따뜻하게
아무는 동네**

이주은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팀장)



안녕하세요, 팀장님! 복현유사를 이끌어가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주은 팀장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 복현유사를 비롯해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인 인문사회 조사, 복현유사 브랜딩 등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현유사 프로젝트에 함께하시게 된 계기는?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디자인 내마음은콩밭 협동조합에서 지역 문화진흥원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협력할 지역으로 복현1동에 제안해 주셔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 예산으로 운영되어서 행정업무보다는 주민 홍보·모집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역할을 주로 했었고, 마지막에는 복현유사 이야기책 제작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시 낭송, 낭독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주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창작으로까지 이어가는 과정에 지역의 청년 사업체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현유사를 비롯하여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록 활동·사업들이 많지요? 이에 대해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기관의 기록은 주로 문서로 접하는데, 아직 기록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볼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록은 주민들의 삶이 남겨졌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했고 공간, 인문사회, 사진·영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참여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공간과 기억을 남기기 위해 생애사 인터뷰와 주거지의 공간 실측, 영상·사진촬영을 하였고, 진행하다 보니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하는 일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했고, 수집된 자료의 활용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데이터 운영 관리 방안 등 수집 이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겠더라고요. 또, 참여자들에게 이 기록은 어떤 의미로 남겨질지, 왜 기록을 남기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해요. 그런 부분에서 기록사업에 함께 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가지는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기록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저도 사무적으로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정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프로젝트처럼 일회성일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지역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와 일하면서 타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민이나 청년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지요?

지역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 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복현유사처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주신 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센터에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눠주시기도 할 정도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동네예요. 청년들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복현1동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는데,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 인문사회 분야 담당 박사님이 전공 학생들보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잘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복현유사, 복현담 등 이렇게 기록물을 만들면 어떻게 보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기록물은 관계자만 볼 수 있도록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 신청을 해서 등록하면 마을 도서관이나 인근 학교에도 비치해 둘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도 오픈소스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나 텍스트보다는 사진이나 영상 등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요소로 가공되어야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수집된 자료들을 연극, 시, 동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현대인들의 트렌드와 흐름에 따라 홍보해야 합니다. 기록물의 형태로만 남겨놓으면 창고에 쌓아두는 것과 다름 없고, 소장하는 것보다 공유할 때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우리의 이야기와 소중한 삶의 기록들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센터와 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록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미래에 남겨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인근 학교에서 수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취업 등 활동하는 청년들은 바뀌겠지만 지역 기록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에게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교육이 되고, 연구자들에게는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록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주민과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이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현담, 복현유사 등 마을의 기록을 지금은 센터가 주도해서 청년, 주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마을 기록은 누가 해야 되나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민이고, 내 이야기를 자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명인들이 자서전을 남기는 것처럼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환경, 그리고 사회 변화 등을 담은 희노애락의 이야기가 남겨지고 공유할 때 가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남기는 것에 대해 의미를 담고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지역 연구자들에게는 가치 있는 연구 자료로 사용되도록 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50년, 100년 뒤에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들이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남겨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니까요.



복현동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양한 사업들에게 사람들이 소모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면 남겨지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 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 남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대가 되어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에 애정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업 이야기만 너무 했네요. 복현동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일을 해보니 살고 있는 주민이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 왜 도시재생을 하는지, 활동하면서 삶의 변화를 느끼는지 등 주민들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은 주민들과 마을에 긍정적 변화로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얼마나 느끼시는지 속 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복현동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난리를 피해 정착하신 곳이지만, 그 안에 삶터를 꾸리시면서 고단하고 어려움에도 이웃들과 정을 많이 나누면서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길을 산책하다 보면 노후되어 낡은 집들이 많지만 삶의 공간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가졌지만 따뜻한 동네, 정겨운 동네라 생각해요.





맺음말

“답은 허물어진다”

복현유사에 담지 못한 이야기, 복현담.

잘 읽어보셨나요?

마음 한 켠이 아리면서도 따뜻하지 않으신가요?

가끔 무기력해질 때 이 복현1동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이겨내 온 이야기들을 읽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주민 구술자 그리고 청년 편찬자가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알고 관계 맺고 마음을 나누면서 만들어진 이야기 <복현유사>.

어르신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낭독극,

인형극도 한 <복현유사>라는 사업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복현유사를 만들기 위해 수행한 ‘인터뷰’라는 과정 속에서

주민과 청년들의 ‘만남’을 더욱 가치있게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주민과 청년이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세대, 시대라는 다양한 담들을 허물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다양한 담들이 존재합니다.

격차와 차별, 이기심들이 복현1동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현담에는, 담을 허물고 상대의 기억을 듣고 살려내

진짜 만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다고 자부합니다.

함께해주신 주민구술자를 비롯해 복현담을 읽고 계신

복현1동 주민분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앞으로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큰 배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청년편찬자를 비롯해 복현담을 읽은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자신이 어르신들의 기억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었다는

‘듣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현유사에 담지 못한 이야기 복현담

편 찬 자 박규훈, 김민국, 윤석환, 이예지, 김현진, 장준원,
이슬기, 정혁진, 박예찬, 심재신, 박아영

구 술 자 김부매, 김순제, 서성남, 이옥기, 한영자, 이말순,
하경진, 오종덕, 채인수, 배옥자, 박인옥, 강순덕,
고경호, 윤경옥, 권혜경, 장세만, 이주은

진 행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주은

편 집 향유고래 심재신

디 자 인 향유고래 최주연

인 쇄 경북프린팅

펴 낸 곳 (주)뷰티인사이드

발 행 일 2021년 3월

발 행 처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9길 13, 2층

전 화 053)939-3550

이 메 일 bh1dong@naver.com

이 책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BOKIVE(복현 피란민촌 아카이브, www.bokive.com)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복제를 금합니다.